

# 꿈의 정원, 가르텐트로이메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 시골 마을에 원예가 마리온 에른스트의 동화 같은 정원 '가르텐트로이메'가 있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72편, 가르텐트로이메 정원 이야기.

# Fantasy Garden

In a tiny village deep in the woods of Bavaria, Germany, Marion Ernst has painted a fairy-tale garden that brings joy to visitors. Gartenträume was built with the belief that the best dreams are created and shared together.











귀한 것들이 대개 그렇듯, 마리온 에른스트의 집과 정원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 동부 지역에 있는 팔켄펠스의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성 요한 교회의 종탑이 총천연색

식물 위로 얼굴을 빼꼼히 드러내면서 어느덧

'가르텐트로이메'에 도착했음을 알린다. '정원의 꿈'이라는 의미인 가르텐트로이메는 에른스트 소유의 정원 이름인 동시에 그녀가 운영하는 정원 디자인 회사 이름이기도 하다.

에른스트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대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고는 뒤쫓아 오는 고양이 두 마리를 이끌고 장미로 완전히 뒤덮인 아치형 구조물을 지나가며 말했다.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다들 여기서 사진을 찍죠."

마치 독일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그림 형제의 이야기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다. 농가를 개조해 만든 본채와 게스트 하우스로 쓰는 별채는 나무와 식물, 꽃, 관목에 반쯤 가려 있다. "남편 안드레아스와 저는 어릴 때 이 근처에서 자랐어요. 어른이 된 후 뮌헨에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도시 생활을 그만하고 싶을 즈음 들어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녔죠."

부부는 성 요한 교회 옆 황폐한 농가로 보이는 집을 발견했다. 교회 관리인이 한때 거주했던 곳으로 드넓은 땅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레 봐야 방치된 목초지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뮌헨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경계했어요." 에른스트의 말이다. "우리가 자연과 전통을 무시하고 이곳에 현대식 별장을 지을까 걱정한 거죠."

다행히 주민들의 경계심은 곧 누그러들었다. 몇 년에 걸쳐 힘들게 주택 두 채를 복구하고 나자 에른스트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렸다. "인근 지역에 많이 자라는 식물을 활용해 집과 주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소나무, 참억새, 다양한 벚과 식물을 비롯해 러시아산세이지, 양귀비, 데이지, 원추리, 들장미 같은 야생화 등을 심었어요. 물론 산딸기류 나무도 많고요."

그러면서 에른스트가 몇 마디 덧붙였다. "전 인위적이고 과한 디자인보다는 그저 자연을 약간 손봐서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원을 꾸미고 싶었어요. 운 좋게 정원에 큰 우물이 있어서 물 문제는 걱정이 없었죠. 제가 꿈꾸는 정원은 거실 창문에서 내다보이는 예쁜 장소가 아니라 삶이 있는 장소예요.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장소 말이에요. 여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그 점도 다각도로 고려해야 했죠."

Like many great things, Marion Ernst's house and garden aren't easy to find. But take a series of back roads in Falkenfels, a municipality in eastern Bavaria, Germany, and you'll suddenly see the bell tower of St Johann peeking above a riot of plants and colors that heralds your arrival at Gartenträume. Meaning "Garden Dreams," the name refers both to the garden and the garden design business Ernst runs.

Ernst waves hello and opens the gate. Two cats at her heels, she leads the way through an arch completely covered in roses. "It's so popular with newlyweds," she says. "They all want their picture taken here."

Arriving at Gartenträume feels like stepping right into a scene in one of the Grimm brothers' fairy tales. Trees, plants, flowers and bushes half conceal a gorgeous renovated farmhouse that serves as the main house and another smaller dwelling that's now a guesthouse. "My husband, Andreas, and I grew up around here," says Ernst. "We lived in Munich for many years. We wanted to leave the city life, so the hunt for a suitable place began."

They found their home in the form of a run-down farmhouse next to St Johann. A lot of land surrounded the property, but it had been neglected. "The locals were wary at first when they saw our Munich license plates," says Ernst. "They thought we wouldn't respect nature and tradition and would turn it into a modern holiday home."

The locals soon changed their minds. Years of hard work went into restoring both houses — and then Ernst's imagination and creativity kicked in. "I wanted to create a garden that suited the house and made use of the plants nature so abundantly provides in this part of the country," she says. "We have pine trees, eulalia and several other grasses, wildflowers like Russian sage, poppies, daisies, daylilies and wild roses — and, of course, many berries."


She adds, "I didn't want to create anything artificial and overly designed — just improve on nature. We're lucky to have a well in our garden, so water is no problem. My vision of the garden is that it's a place to live in, not just a pretty picture you look at from your living room window. It's a place that grounds you. We have a lot of snow in winter, so I had to consider that, too."





독일 바이에른주 팔켄펠스에 위치한  
마리온 에른스트의 집과 정원  
Marion Ernst's home and garden  
in Falkenfels, Bavaria, was once  
a neglected farmhouse.





“가르텐트로이메에는 계절에 따라  
색이 바뀌는 풍경을 감상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

Gartenträume is designed to have  
plenty of intimate spaces where you  
can relax and take in the changing  
colors that each season brings.”









에른스트가 상상력을 발휘해 만든 장식이  
정원에 영롱한 즐거움을 더한다.  
Small touches add to the magic and  
whimsy of the garden, like this unusual  
bowl containing a houseleek.




**기발한 상상력** 에른스트의 조경 철학에 따라, 정원은 경관 구조를 고려해 몇 개 부분으로 나뉘어 조성됐다. 집 뒤편에는 분홍색, 자주색 수국이 물결치고 곳곳에 빛과 식물과 의자를 배치했다. “저는 잎과 꽃이 색을 바꾸는 가을을 무척 좋아해요. 정원의 풍경이 그야말로 변화무쌍해지는 계절이죠.”

에른스트는 숲과 강바다에서 주워 모은 돌맹이와 조약돌을 이용해 연못도 만들었다. 연못 한쪽 가장자리에는 낮은 기와를 모아 지붕을 올린 쉼터가 있어서 정원을 찾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편하게 쉴 수 있다. 쿠션과 양초, 꼬마전구도 구비해 날이 따듯한 저녁에는 더없이 평온한 휴식 공간이 된다.

모퉁이를 돌면 사과나무와 산딸기나무가 자라는 작은 과수원이 있고, 그 뒤로 울타리를 치고 채소와 화초를 키우는 텃밭이 보인다. 집 서편 경사지를 따라 목초지가 자리하고 그 너머로 숲이 펼쳐진다. “농부들이 와서 풀을 베기도 하지만, 그때만 빼면 봄과 여름에 야생화가 다채롭게 피고 주변에서 벌과 나비가 바쁘게 날아다녀요.” 에른스트의 말이다.

연못가에 앉아 커피 한 잔에 레드커런트케이크를 곁들이며, 에른스트가 이 지역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그녀에 따르면 성 요한 교회는 원래 고대 켈트족의 예배 장소였다고 한다. “그때의 기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식물의 성장을 돕고 정원을 더 확장하도록 창의력을 북돋아 준다고 믿어요. 정원 조성은 늘 진행형이죠.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떠오르거든요.” 700년 동안 교회 근처에 서 있다가 1902년에 벼락을 맞아 쓰러졌다는 떡갈나무 이야기도 했는데, 에른스트는 나무의 정령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에른스트는 원예에도 일가견이 있지만 조각도 무척 좋아해서 정원 여기저기에 조각상 여러 개를 배치했다. 그녀는 항상 특이한 예술품을 찾아다니고 수집한 작품을 자기 취향대로 손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스터섬의 석상을 닮은 목조각품에 말린 화초로 가발을 씌운 게 대표적이다. 에른스트가 정원에 쏟아부은 열정은 예기치 않게 사업으로 발전했다. 이 정원에서 공연을 열고 싶어 했던 에른스트의 노래 선생님이 아름다운 정원 풍경에 반해 자기 정원도 디자인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에른스트는 현재 가든 디자이너로 명성을 얻고 있다. “고객을 만나 그들의 취향과 생활, 성격 등을 파악해요. 그런 다음 고객에게 어울릴 것 같은 정원을 디자인하죠. 마치 우리 집 정원을 만드는 것처럼요.”

에른스트에게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새로운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의뢰한 고객이 자신의 제안을 모두 수용하고 거기에 고객만의 스타일을 더할 때다. “늘 고객에게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에른스트의 말이다. 그야말로 정원의 꿈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이지 않은가.  글 인카 피에그사키쇼테 사진 로베르트 마비치

**CREATIVE SPIRIT** In accordance with her philosophy, Ernst divided her garden into several parts that follow the structure of the landscape. At the back of the house, there is a swath of hydrangeas that range from pink to purple, interspersed with grasses and chairs to sit in. “I love it when the leaves and even flowers turn colors in the fall — an ever-changing picture in the garden,” Ernst says.

Ernst has also created a pond using stones and pebbles that she collected from the woods and riverbeds. At one end of the pond, a sitting area with a roof made of old collected roof tiles invites visitors to read a book or just relax. Cushions, candles and fairy lights make it a tranquil respite, especially on warm evenings.

Around the corner, a small orchard with apple trees and berries is followed by an enclosed kitchen garden that contains both vegetables and flowers. To the west of the house, a slope leads to a meadow by the edge of the forest. “We enjoy all the wildflowers that come out in spring and summer, and the bees and butterflies that are buzzing around,” says Ernst.

Sitting by the pond with a cup of coffee and a home-baked red currant cake, Ernst recounts the local history, which says that St Johann was originally an ancient Celtic place of worship. “I’m convinced that the energy is still here, helping the garden grow and encouraging the creativity to expand it,” she says. “My garden is a work in progress. I always have new ideas of what I want to do.” An oak tree said to have been 700 years old stood near the church until it was felled by lightning in 1902. According to Ernst, its spirit still lingers here, too.

Ernst’s gardening passion blossomed into a business thanks to her love of singing. Her singing teacher wanted to host a matinee in her garden and was so impressed by its beauty that she asked Ernst to design a plan for her. Ernst’s fame as a garden designer is now spreading. “I treat every project as if it were my own garden,” she says.

The most rewarding moment is when a client on a new project has taken all her suggestions and combined them with their own touches. “I learn from my clients all the time, too,” says Ernst. That’s how garden dreams come true.  By Inka Piegsa-Quischotte Photographs by Robert Mabič



“본채 뒤쪽 터에는 분홍색과 자주색으로 꽃핀 수국을 비롯해 다양한 벚과 식물, 나무를 심어 운치 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Behind the main house, a variety of pink and purple hydrangeas have been planted, along with many kinds of grasses and trees.”





